

# 자연과 인문이 어우러진 '시적 장량'

— 331 국도 길림 구간 풍경 그림 작품으로 태어나

331 국도의 길림 구간은 굽이굽이 펼쳐진 비단따마냥 길림 대지를 감돌며 아름다운 산천과 이 땅의 문명을 이어주고 있다. 국경선을 따라 뻗은 이 도로는 북방 특유의 생태적인 화풍을 그려낸다. 백설을 띤 장백산 봉우리는 하늘빛을 장식하고 송화강반의 푸른 물결기는 비옥한 전야를 적신다.

길림일보사는 성내의 유명 화가 7명을 초청해 압록강, 송화강, 두만강 3대 계곡이 펼쳐지는 경관을 차례로 체험했다. '골짜기, 산등성이, 물굽이' 등 지질 경관은 천연 갤러리마냥 원시림의 광활함과 력사 유적에 담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화가들은 이 도로가 단순한 지리적 통로의 개념을 벗어나 길림의 풍광을 몰입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공간 여행 터널임을 느낄 수 있었다.

천백년에 걸친 인문적인 축적은 이 땅의 문화 구조를 심오하고도 생동하게 만들었다. 길림 사람들의 호쾌하고 솔직한 성품은 풍요로운 물산과 조화를 이루고 흥색 기억과 현대 정신은 이곳에서 융합되어 공존하고 있었다.

331 국도 연선의 옛 도시와 항일유적지들은 이 흑토 위에서 벌어진 조국 정화의 이야기들을 소리없이 전하고 있다. 어렵민족의 겨울 어획 전통,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기예 등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연속되며 끊임없이 변성하는 문화 코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랜드마크식 부호들은 력사의 증인이며 또한 현대 길림 사람들의 문화적 자신감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예술가들은 필묵에 산하의 정기를 듬뿍 담아 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화

폭으로 고정시켰다. 유화, 수묵화 등 한쪽 한쪽의 생동한 작품들이 각기 탄생했다...

이 도로는 자연으로 향하는 려정이면서 또한 문화 유전자에 통하는 길이기도 하다. 화가들은 화필을 날려 단순히 작품을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편의 움직임은 서사시를 쓴 것이다. 길림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산하와 인문 정신으로 하여금 시공을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스며들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길림일보



▲ 7명 화가의 합작 유화 작품 <시적 장량>

## 무형문화유산

## 2000년 력사 자랑하는 전통 자수 '한수'



▲ 한수 (汉绣) 작품

한수(汉绣)는 호북성 무한, 형사, 흥호 일대에서 류행하는 전통 자수 공예로서 2000년이 넘는 력사를 자랑한다. 한수는 2008년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수는 바느질법이 호방하고 화려한 색깔에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립체감이 뛰어나다.

올해 57세인 임위는 한수 전승인으로서 한수 계승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4살부터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견사를 친구 삼아 보고 들으며 한수에 능통하게 되었다. 아버지 임본영은 그녀에게 "공예가는 솜씨로

밥을 벌여먹기 때문에 참된 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수의 핵심 공예 기술을 대대로 이어가고자 임위와 그의 아버지는 문서관, 민간 등지를 방문하며 전통 문양을 복원하고 자수 공예 한수를 위한 전통 문헌과 실물 증거를 남겼다.

2014년부터 임위는 무한시용아학교에 첫 공공 한수 강좌를 개설했는데 백명이 넘는 룡아 학생들이 수강했다. 2015년에는 의류 디자이너 조웨이와 콜라보 작업으로 한수에 현대 패션을 접목시켜 2016년 밀라노 패션위크에 작품이 등장함으로써 금실 모란이 국제무대를 수놓았다.

또 정부의 지원으로 임위는 다양한 한수 문화 창작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고 각종 한수 체험 강좌를 학교에 도입했으며 디지털 전시관도 차렸다. 현재 그녀의 딸인 왕위가 역시 엄마와 같은 길을 걸으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 속에서 전통 공예가 한층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AI 기술, 3D 인쇄술의 발달로 수공업이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한수에 담긴 력동성과 정감을 대체할 수는 없다."며 임위는 "더 많은 이들이 한수 계승과 전파에 힘써 한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화넷

## 연변가무단 작품, '중국무용우수작품'에 입선



▲ 무용 <심화로방> 무대공연의 한 장면

최근 중국무용가협회 발표된 '제 3회 중국무용우수작품모음집'에 길림성에서 추천한 <심화로방>, <계매의 정월>, <내가 너를 집에 데려다줄게> 3편의 창작무용 작품이 다수의 참가 작품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성공적으로 입선되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총 77편의 우수 작품이 이 영예를 안았다. 길림성의 문예일군들은 독특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 예술적 표현으로 새시대 무용 창작 분야에서 다시 한번 풍성한 결실을 안아왔다.

연변가무단에서 정성을 다해 제작한 <심화로방>은 은발의 려행자들이 산천을 두루 돌아보는 기쁨의 려행을

통해 전통 조선족무용의 리듬과 현대 생활의 미학을 융합시켰다. 이 작품은 제 14기 중국 무용 '련꽃상' 민족민간 무용 최종 심사 제명상을 받았으며 제 1회 전국민족민간무용창작작품공연에서도 선보인 바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무용우수작품모음집'은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의 항목 립안 승인을 받고 중국무용가협회에서 주최하며 중국문화예술기금회 지원하는 새로운 무용작품 우수작품 추천 항목으로서 신인과 신작을 발굴하고 전국적인 무용 창작과 전파를 위해 더욱 튼튼하고 넓은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인민넷 - 조문판

## 드라마 《여섯자매》 촬영지 핫 플레이스로



▲ 드라마 《여섯자매》의 한 장면

드라마 《여섯자매》(六姊妹)가 《나의 아라타이》(我的阿勒泰), 《장미의 이야기》(玫瑰的故事)에 이어 작품속 주요 촬영지를 핫 플레이스로 부상시킨 또 하나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올해 음력설 이후 드라마 《여섯자매》의 촬영지인 안휘성 화남시의 구룡강진은 일평균 1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다.

전에는 북경, 상해, 광둥, 심수와 같은 현대화된 대도시나 신강, 운남과 같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 드라마의 인기로 힘입어 관광붐을 일으켰다면 새해벽두에 방송된 《여섯자매》는 한 평범한 가족의 일상에 대한 서사를 통해 전 성 나아가 전국의 시선을 조

용한 산업도시인 회남으로 모았다. 우수한 시대극은 마치 타임머신마냥 높은 완성도로 지역 미학과 시대적 배경을 재현하여 관객들을 그 순수했던 시절로 이끌어가며 감미로운 추억을 되살리게 한다. 드라마 《여섯자매》에 등장한 옛 트럭, 소박한 가구, 낡은 소품, 어려운 생활환경 등은 우리의 공동의 추억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회남인들의 지역적 생활풍습과 방언, 음식문화도 잘 보여준다.

《여섯자매》는 한 평범한 가족 4세대의 50년에 걸친 삶의 변화를 풀어내며 독보적인 작품으로 회남에 대한 관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 국제온라인

## 민족 전통 예술 세상에 알리는 '어린이 합창단'



▲ 들판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과 리서방 부교장

"국문소학교 어린이 합창단은 북경, 심수, 향향 등지에서 공연하며 자신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와산(阿瓦山)의 행복의 노래를 전세계에 전했습니다." 운남성 립창시 창원과 족자치현 국문소학교 부교장 리서방이 하는 말이다.

창원현은 운남성의 15개 농촌 예술교육 실험현의 하나다. 중국과 만마 국경에서 불과 14킬로미터 밖에 떨어져있지 않는 이 소학교는 와산어린이 합창단과 교내 합창 축제에 전문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지난 2016년 이 학교 음악교원으로 새로 부임된 리서방은 합창단 발전의

중임을 맡게 되었다.

그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 학년, 학교를 단위로 합창대회를 개최해 교내 합창 축제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으며 따라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가하는 학교 년례 행사로 발전시켰다.

2022년 창원현에 '와산소년합창단'이 설립되었다. 첫 기수로 국문학교와 맹동진중심소학교에서 100명의 학생을 모집했고 경험이 풍부한 리서방이 총지휘를 맡았다.

리서방은 항상 합창단 일을 최우선에 두었다. 그는 "학교가 변경에 위치해있다 보니 대도시처럼 자원이 많

지 않다."면서 "아이들에게 외부로 나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와산은 건기 시작하면 춤을 추고 말하기 시작하면 노래를 부른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리서방이 만난 와산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유전자를 타고난 듯했다.

리서방은 전문가에게서 배우며 연구 끝에 와산 전통 민가인 합창곡 <호앙가(薊秧歌)>로 현급 1등상을 수상했다. 또한 다수의 창작곡으로 창원현 국제와족음악제 가장부분 1등상과 우수상 등을 휩쓸었다. 와산소년합창단은 창단 3개월 만

인 2022년 6월 30일 립창시에서 열린 대형 문화예술 행사에서 처음 공연을 펼쳤다. 무대에 선 100명의 어린이들은 자신감 있게 합창곡 <와산소년>을 목청껏 불렀다.

합창단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2023년 8월에는 북경 국가대극원의 초청으로 대규모 특별 음악회에 참가했다. 수도에 가본 적이 없는 대부분 아이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공연을 마치고 리서방은 북경에서 하루 더 머물며 천안문, 인민대회당, 원명원을 둘러보았다. 이에 아이들은 "북경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 노래를 배우고 싶다."는 더 큰 꿈을 갖게 되었다.

'와산소년합창단'은 창원을 알리는 하나의 명함이 되었다.

창원현은 깊은 력사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리서방은 와산 전통의 목고무(木鼓舞), 솔발무(甩发舞)를 출 줄 알고 와산 민가를 부를 줄 아는 학생이 해마다 줄어 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그는 민간 예술가나 장원현 예술 과목 교사를 초빙해 수업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향토 민족문화를 가르쳐왔다. 학생들은 죽금(竹琴) 등 악기도 직접 만든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와산 문화 전승자와 함께 합창단 연습을 진행하기도 한다.

평소에 늘 기증 교사들을 관심하고 민족문화 전승 발전에 적극 힘써오고 있는 리서방 부교장은 자원을 공유 및 상호 보완하고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며 아이들의 민족적, 문화적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변경지역 학교와 주변국 및 내륙지역 학교와의 교류, 협력 강화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 신화넷

## '칠채' 전통 고촌락, '유화 산촌'으로 불러



북경성 천주시 천황구 도령진 서북부에 위치한 중국 전통 고촌락 장각촌에 관광객들이 속속 찾아오고 있다.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산책하며 담소를 나눈다. 이는 조용하고 고풍스러운 마을에 활기를 더한다. 이곳의 고택들은 대부분 청나라 가

경 4년(1799년)에 지어져 200여년의 력사를 지니고 있다. 마을 주변 산악 지대에는 청석과 오색석이 풍부한데서 선조들은 현지 재료를 활용해 오채석과 청석으로 집을 지은 것이다. 색채가 선명하고 고풍스러운 이 고택들은 마치 칠채 고성과 같이 '유화 산촌'으로도 불린다. / 인민넷